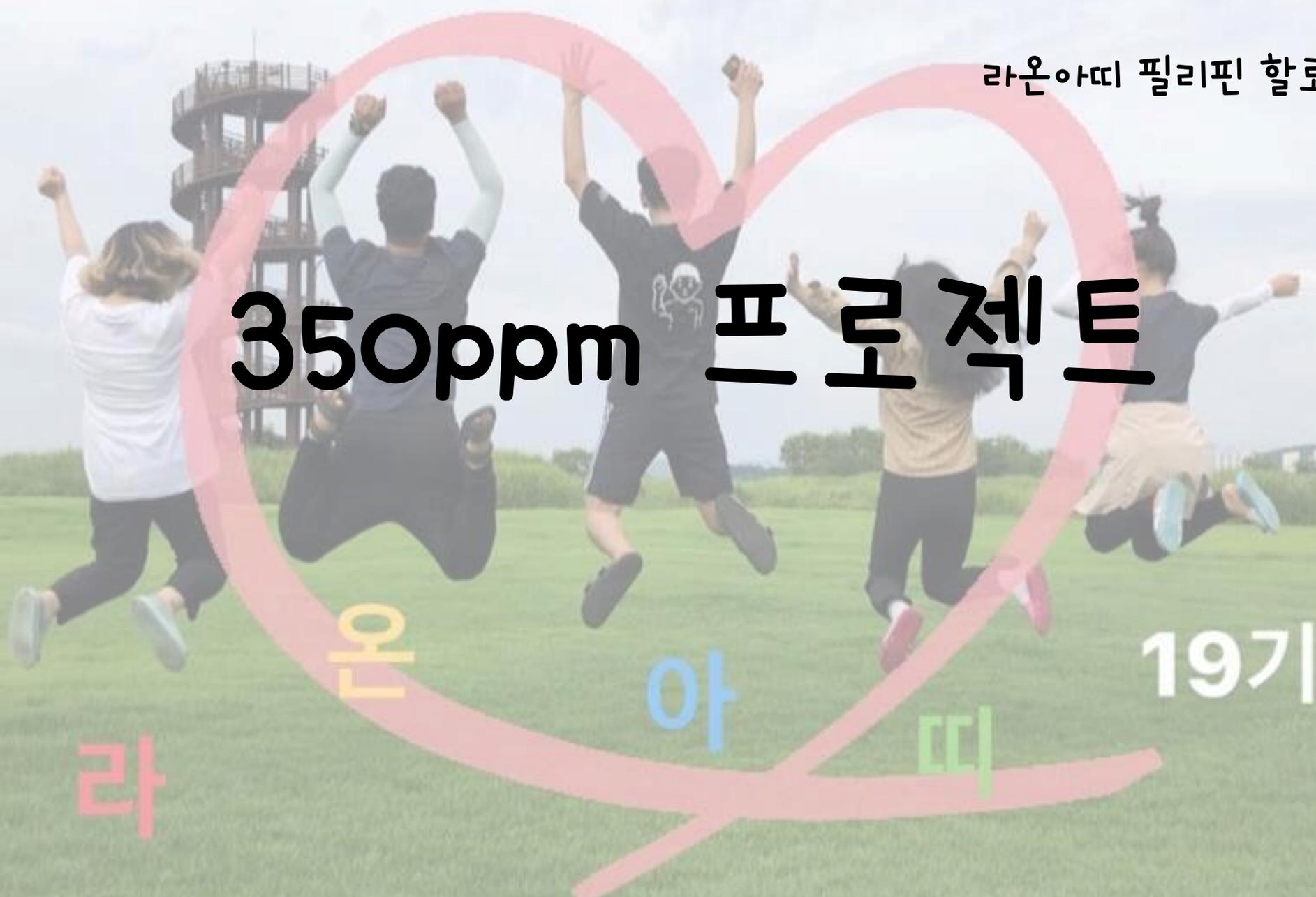


라온아띠 필리핀 할로할로팀

35Oppm 프로젝트



라

온

아

띠

19기

- 권수아
- 김민수
- 남은진
- 류가형
- 손민우

1.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



숙소, 보육센터, 상담센터 등 5층 이하는 걸어다녔습니다

2. EM 용액 사용



세제 대신 EM 용액을 사용해보기도 했습니다

3. 30분 이내 거리는 걷기



30분 이내의 거리는 걸어다녔습니다

4. 탄소배출 줄이기 캠페인 ☆☆☆☆☆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과 탄소배출 줄이기를 함께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4. 탄소배출 줄이기 캠페인 ☆☆☆☆☆



학원가에 위치한 숙소. 학생을 대상으로 캠페인 진행 결정!
양치컵과 탄소배출표를 붙인 노트를 준비했습니다

4. 탄소배출 줄이기 캠페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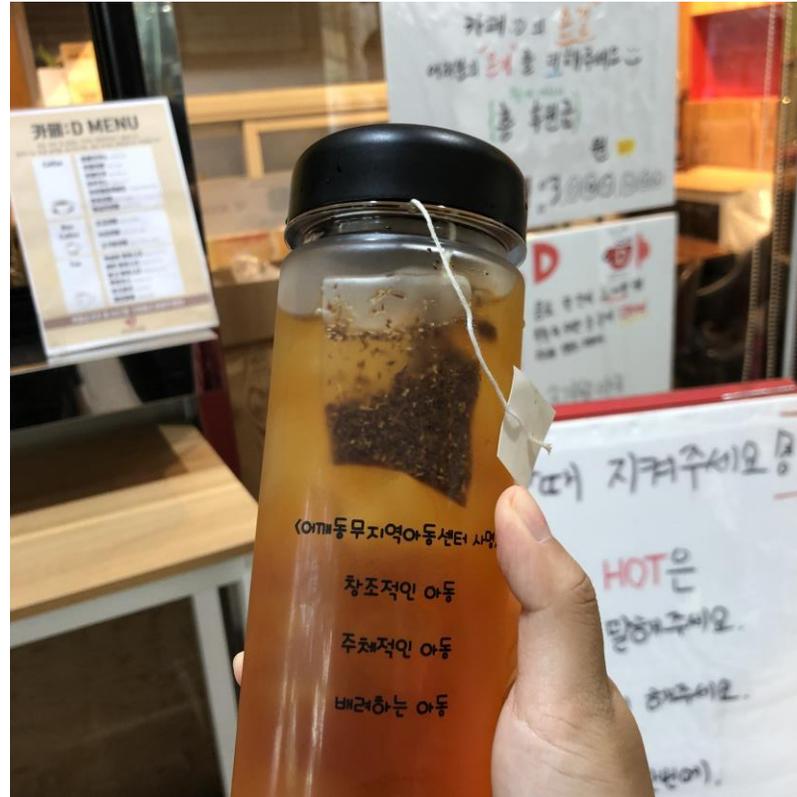
팀원들부터 각오 한마디씩 적으며 거리로 나갔습니다

4. 탄소배출 줄이기 캠페인 ☆☆☆☆☆



간사님과 학생들에게 캠페인을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5. 텀블러 이용하기



카페 테이크아웃 컵 대신 텀블러를 이용했습니다

6. 배달 시 일회용 숟가락, 젓가락 배주세요

요청사항

자동저장

사람이 없을 시 앞에 힐링센터로 와주세요

- 일회용 수저, 포크 안 주셔도 돼요
주변에 사용할 수 있는 식기류가 있다면
일회용품 줄이기 함께 시작해요.



배달 음식을 먹을 때도 일회용 수저 대신 숙소의 식기를 사용했어요

7. 생협(생활협동조합) 제품 이용하기



로컬푸드를 판매하는 생협의 상품을 이용했습니다

팀원들의 소감 한 마디

가형

35Oppm 캠페인을 하면서 탄소배출 줄이기에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350에 대해 알리고, 활동 참여를 유도 하는 건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 탄소배출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했던 텀블러 사용, 걸기, 계단 이용 등의 활동은 이게 과연 얼마나 탄소배출 감소에 도움이 될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구요. 그래도 이제 제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걸 알게 된 이상, 편한 마음으로 이전같이 생활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불편한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으면 해요!

안 힘든 척하고 걸어 다니고 계단으로 다니고 했는데 사실 저도 상당히 힘들었어요. 날이 워낙 덥고 해가 강해서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편하게 다니고 싶은 날도 있었지만 우리가 35Oppm 프로젝트 할 생각을 하니깐 함부로 편하게 살 수 없었어요. 나는 노력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노력해달라고 말하기는 싫었어요. 프로젝트로 학생들에게 양치컵과 탄소배출량이 적힌 노트를 줬어요. 학생들이 양치컵을 오래 써주고 탄소배출표를 한번이라도 읽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도 샤워 시간 줄이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우

팀원들의 소감 한 마디

은진

더운 날씨에 매번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보육센터까지 20여분을 걸어다니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함께하는 팀원들 덕분에 조금이나마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양치컵과 노트를 나눠주는 캠페인 역시 지역을 돌아보고 그에 알맞게 준비한 것 같아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필리핀에 가서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일상 속의 작은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5Oppm 캠페인을 하면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과일을 사기 전에, 일회용품 사용하기 전 등 높은 탄소배출상품을 소비하고 사용하는 습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행동을 하든지 계속 탄소 배출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라온아띠가 끝나면 탄소 배출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줄어들겠지만 탄소 배출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같이 하자고 홍보까지 했는데, 끝까지 해 볼 생각입니다.

민수

팀원들의 소감 한 마디

수아

350ppm을 진행하면서 일상생활에서 계속 조금씩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 것 같아요! 부득이하게 비닐을 써야하면 후에 재사용할 방법을 열심히 고민하고,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기발한 방법도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너무 더운 날씨에 엘리베이터의 유혹이 강했지만 다른 단원들이 이끌어주고 밀어준덕분에 잘 버틴 것 같습니다. ㅎㅎ 세제 덜 쓰기, 샤워 시간 줄이기 등등도 시도했는데 가시적인 증거는 크게 없어도 스스로 다짐하기 좋았던 것 같아요.

외부에 나가서 탄소배출표가 붙어있는 공책을 나눠주기도 했는데 대상 선정과 쓰이는 비용, 준비물 등 까지 회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좀더 준비시간이 길었다면 회의에서 더 좋은 의미와 아이디어가 나왔을 것 같아서 급하게 준비하게 된 건 좀 아쉽고, 급해서 서로 충분히 소통되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앞으로의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해야할 지도 조금 배울 수 있던 것 같습니다. 필리핀가서도 가능한 일은 계속 하고 새로운 방법도 많이 시도해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